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하나님 제목 :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 이사야 53장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53:1-12)

죄와 저주란 무엇일까? 죄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저지르게 되는 각종 범죄와 허물(자신은 원치 않지만 무지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악행)이 죄요, 저주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커져서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요,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죄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이기도 하고, 구조적이기도 하다. 저주란 죄의 값을 치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은 저주가 죄를 더 범하게 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격)

죄의 영향력은 실로 방대하며 처참하며, 기괴하다. 사람의 죄는 상상을 초월하여 악하기 때문에 모두들 그 악함의 강도로 인하여 놀라게 된다. 저주의 결과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처절하다. 저주로 인해서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과 질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방관하지 않으시고 대책을 마련하셨다. 그 대책은 영원한 대책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폭넓은 대책이시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핵심 동기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저주로 인한 고난과 질고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끊어버릴 방법을 강구 하셨다. 그리고 저주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당하는 희생으로 정하셨다.

희생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희생적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

문제는 이 사랑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고 믿게 하느냐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방법이었다. 그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구원에 관한 지식과 방법과 원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경험하게 하여서 그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고, 복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 복을 보고 놀라게 하고, 자기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사이에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게 함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곧 이 구원의 핵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다.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이 믿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었다.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믿음이란 기계적이거나 단순한 신뢰관계나 사실확인이 아니라, believe in(not believe) 즉 신념 + 절대적 가치관 + 하나님께 대한 전인적 충성 + 희생적 사랑이 포함된 믿음을 말한다. 혹은 신앙으로 표현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구원)이 신앙인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신앙인가? 2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언됨.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연한 순;나약하고 단순함. 예수님은 대속적 죽임당함을 순순히 받아들이셨는데, 마치 연한 순처럼 순종하셨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물기가 없어서 축 늘어진 모양.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양을 표현함.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로마 병정들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셨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뿔뿔히 흩어져서 예수님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마치 의사처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마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든지 마땅히 당해야하는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여겼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매수한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은 무고를 즐긴다.)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가시에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감당하기 위함이요,
그가 창에 허리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함이요,

그가 사형선고를 당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요,

그가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은 이유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대신 감당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아서;양처럼 무지하고 고집이 세서 단순한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된 우리의 현실을 말한다. (양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유
한 것)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
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구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셨다. 그 사명이 지극
히 고통스러운 사명이었지만, 끝까지 성실하고 순전한 자세로 이 사명을 감
당하였다는 것을 예언함.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두가지
비유는 양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특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순한 양 중에
서도 극히 순한 양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모든 죄와 허물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탕감 제도도
그가 갚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탕감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어 갚을 길이 없을 경우, 그의 가난이 곧 그에게 형벌이 되기 때문에 탕감
해 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무분별하게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다.(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과
책제도가 있다.) 그가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을 의도가 있는
지를 먼저 본다. 즉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다. 두 번째 최저생계비만으로 5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본다. 그가 다른 경
제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신용카드나, 대출이나, 차량과 같은 것을 할부

로 구입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그가 더 이상 무분별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경제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말로 신용을(믿음)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줄 경우 그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먼저는 회개가 필요하다. 자신이 죄인임을 뉘우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악한자 마귀의 꾀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충분히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하며,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자기와 주변 사람에게 더 나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회개이다.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죄가 무엇인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는지, 또 내가 죄의 빚인 형벌을 탕감받기 위해서 선에 대해서 빚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실하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

-즉, 과거와 현재에는 죄와 그 형벌에 대한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모든 빛을 탕감받는 것이고, 그 탕감의 조건이 믿음, 즉 신앙인데, 이제 이후로의 복은 현재와 미래에 해당하는 선행을 담보로한 신용대출인 셈이다. 국가적으로도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한 5년간의 성실한 생활을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일정기간동안 선행에 대한 점수를 지켜보신다. 신앙을 결단하는 순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의 신분이 변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행에 대한 약속의 이행이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복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나라와 은행에서는 5년정도만 지켜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감시에 게으르지 않으신다.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아리마대 요셉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보상을 받으시는 예수님;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선행으로 그 빛을 갚으면 그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함과 같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찬양예배>

주제:사랑 제목: 너를 위한 믿음 말씀: 누가복음 5장 17-26절

17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2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눅5:17-26)

사랑은 성격상, 자기 자신을 향할 때 큰 힘이 발휘되지 못하고, 남을 향할 때 큰힘이 발휘된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

힘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희생적인 믿음은 사랑하는 자의 죄악까지도 사함을 받게 한다.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지만, 힘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께 갈 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였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의 선행을 내가 쌓아야 하지 않을까?